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사제, 보제,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부활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들과 보제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들과 수녀들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성 그리고리오스 신학자의 말씀에 따르면 “태양이 별을 압도하는 것처럼 지상의 축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제 등 모든 축제를 압도하는”(부활절 제 45 설교) 축제 중의 축제이며 축일 중의 축일인 오늘 크나큰 기쁨을 품고서 모든 사람에게 친숙하고, 또 동시에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오래되고도 영원히 새로운 인사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확인하는 이 두 날말에는 너무나 큰 힘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의 얼굴이 영적인 기쁨으로 빛나고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 변화됩니다. 영원한 환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하늘이 맘껏 기뻐하고, 땅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심지어 유형과 무형의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여 경축합니다.(부활 대축일 카논)

구세주의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석이며, 또한 모스크바의 성 필라레토스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새로운 소식이자 목상, 놀라움, 감사와 희망의 원천입니다.”(부활절 설교)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취하시고 수난을 받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늘나라의 문을 사람들에게 열어 주시고, 창조주와 일치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다른 이름은 하늘 아래

없으므로(사도 4:10~12) **세상을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2 코린토 5:19)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능성을 가집니다.

구세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죽음을 불멸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무한한 선과 완벽한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께 감사하도록 격려하고 가장 어려운 정신적 상태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할 힘을 주며, 공허한 일상 생활에서 우리를 고양시키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도우며, 우리가 온전히 살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낙담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은 악이 지배하고 승리하지만 선은 눈에 띄지 않고 약해 보인다는 악한 생각에 자주 굴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복음경에서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고통에 관하여 들으며,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1 요한 5:19)을 목격할 때, 우리의 지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권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교회는 **구세주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멸하셨으며, 지옥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부활절 설교)을 수천 년 동안 확신 있게 증언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악의 보편성을 극복하셨으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미 후세의 삶과 파스카의 정점에 서서 그들의 패배를 바라봅니다.

무덤으로부터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과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만인의 부활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1 테살로니카 4:14) 우리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히브리 10:36)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고,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행하며, 교회의 성사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마지막까지 그분께 충실한 상태로 남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줍니다.”**(히브리 10:35) 그리고 주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참되고 신성한 이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또 죄와 죽음과 모든 불의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과 고난, 악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모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정결한 생활과 선한 행실과 선행으로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고,**(성 대 아타나시오스. 부활절 제 10 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며, **살아 계시는 참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기를**(1 테살로니카 1:9~10) 바랍니다. 아멘!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

2024 년

그리스도 부활

대축일